

법회안내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 21일~22일 문경 정토수련원 제9차 신앙대회 법문. 29일 오전 10시 무진법장사 7주년 기념법회. (02)932-2333

법륜스님(북녘 동포동기불교운동본부장) 18일~7월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흥재 정토포교인 아나뫼다회(금강경) 강의. 17일~6월30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서초 정토법당 수행법회(금강경) 강의. 4월 22일~6월 3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불교의 통일론' 강의. 18일 25일 오후 7시30분(법성계). 6월 24일 7월 1일 오후 7시 30분(신심방). (02)379-1650

일관스님(보현사 주지) 매일 새벽 4시 30분(금강경) 독송 일과기도법회. 매일 오전 10시(천수경)독송 일과기도법회. 매일 첫째 일요일 오전 10시 가족법회. 매일 셋째 금요일 오후 7시30분 부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학생회법회. 매일 셋째 금요일 오후 2시 구역법회. (02)952-8800

승묵스님(동원정사 주지) 매일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법회. 매일 음력 15일 오전 10시 보름법회. 매일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법회. 매일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거사법회. 매일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조흥은행법회. 매일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0346)593-6829

원곡스님(연꽃피는길 주지) 거사회법회 매일 첫째 수요일 오후 7시. 매일 1일 오전 10시30분 초하루 정진법회. 매일 18일 오전 10시30분 지장재일 법회. 매일 24일 오전 10시 30분 관음재일 법회. (062)943-0108

해명스님(광주수덕사 주지) 매일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 정진법회. 매일 음력 7일 오전 10시 초이레법회. (062)263-0550-1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 주시면 성실하게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수행일기 쓰면 마음공부 잘된다

참선 정진 독경 시간·느낌 등 기록 수행방법·효과 점검...성취감 높여

자신의 수행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참선, 정진·독경일지를 쓰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 '일일참선'을 생활화하고 있는 김의식씨(국도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는 대학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6시부터 점심, 저녁시간 틈틈이 시간나는대로 참선에 들고 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며 혼자서 간화선을 하다보니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김씨가 생각해 낸 것이 참선일지. 김씨는 3년전부터 좌선·명상일지를 쓰고 있는데 마음공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김씨의 좌선일지(표 참조)는 월, 일, 좌선장소, 입정시간, 자세, 호흡, 집중, 느낀상태와 비교관으로 나눠 입정시간은 분단위로, 자세등의 상태는 아주좋은

은 3, 보통은 2, 나쁜은 1로 표기한다. 또 느낀상태는 집약적으로 요약표현하고 있다. 김의식씨는 "일지를 쓰다보면 흥미감 성취감이 들고 직장인으로서 화두를 놓치고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계속 공부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며 "무엇보다

참선방법을 스스로 점검하고 고쳐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년동안 정진·독경일지를 써온 윤상호씨(현주기획 대표, 서울역삼동)는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며 절을 한다. 한달 동안 절하고 독경한 것을 체크해보면 저축한 느낌이 들어 계속해나갈 마음이 생긴다는 윤씨는 1백일 단위로 끊어서 절과 독경을 하며 자기자신을 관찰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좌선 명상일지

Table with 7 columns: 일자, 좌선장소, 입정시간, 자세, 호흡, 집중, 느낀상태, 비고. Rows include dates from 6/11 to 6/17 with details on meditation location, time, posture, breathing, concentration, and feelings.

IMF고개 넘는 불교처방 대승불자회 향일암 순례 산새들 지켜주고 봄내음이 가득한 사찰에서 온갖 번뇌망상 떨쳐 버리고 참나를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 조계사대승불자회(회장 송지성)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 동안 여수 향일암과 순천 선암사로 구도 정진법회를 떠난다. 참으로 진행될 이번 법회에는 순천 선암사주지 현오스님의 'IMF를 불교로 극복하는 방법'이란 법문도 곁들여 진다. 단 하루만이라도 속세를 떠난 수행자의 자세로 돌아가 부처님의 숨결을 체득하며 정진할 수 있는 불자들의 특권을 누리보자. (02)736-4848

신행수첩

'평생을 불법 실천' 서원 무진장스님 지도 경전반

위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불자의 가장 원초적인 삶의 목표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평생동안 경전공부를 할 수 있는 도량이 4월1일 문을 연다. 동산반야회(법주 무진장)가 그러한 원대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무진장스님과 함께하는 평생경전 공부반을 시작한다. 매주 일요일 오후 6시~8시 동산법당에서 <금강경>을 시작으로 <육조단경> <발심

수행장> <선가귀감> <유마경> <반야심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천태사교의> <법화현의> <법화문구> <법화경> <화엄경> 등을 꾸준히 공부하게 된다. 매과목 경전공부를 마칠때마다 무진장스님으로부터 입지수계도 받는다고. 평생경전공부의 원력을 세운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린다. (02)732-1206

신행 다지는 철야정진

정토회 문경 신앙대회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정토를 이루고자 하는 정토회에서 철야정진 제9차 신

게시판

알림

△불교통신 창간 기념식이 전국 주요불자의 소식과 행사를 전송(FAX) 또는 우편으로 배포하는 '불교통신' 창간기념식이 23일 오후 7시 송현클럽에서 열린다. 문의 신상철 (02)723-9811

강좌

△생활불교 특강=조계종 복지재단(이사장 송월주)은 생활불교·장의예식교육·건강한 가정만들기·발반사오법 등의 특강을 한다. 동참자 접수는 18일까지. (02)723-5101~2 △'불교와 여성' 강의=제주 문화포럼(원장 하순애)은 18일

저녁 7시 작업자회관 강당에서 불교대중강좌를 갖는다. '불교와 여성'을 주제로 객관연교수(홍아태)가 강의한다. (064)22-6914 △조계사 문화강좌=조계사(주지 현근)는 선제조, 다도, 불화그리기, 관소리, 서예, 수지침 등 봄맞이 문화강좌를 실시한다. (02)720-6742

모집

△국제포교사 연수생=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제3회 국제포교사 연수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조계종 스님 신도라 영어회화 가능하다. 31일까지 접수한다. (02)720-7060~4 △제천불교대학=제천불교대

학(학장 원명스님)은 20일까지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선착순 1백명. 입학식은 25일이다. (0443)47-2840 △금화사불교대학=금화사불교대학(주지 대안)이 불교기초교리,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등을 공부하고자 하는 불자들을 모집한다.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18일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051)582-3042 △자원봉사자=인덕노인복지회관(관장 서성운)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식사보조, 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 간병, 수치침, 이·미용, 목욕, 서예, 에어로빅, 맨들체조 봉사

에 나설 자원봉사자를 수시 모집. (02)385-8205 △독거노인·소년가장 후원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설웅)은 구로3동에 거주하는 85세의 무의탁 독거노인과 구로4동에 사는 13세 소년가장을 도움 후원자를 모집. (02)852-0525 △수화교실=원심회(회장 덕신)는매주 월, 목요일 오후 7시~8시30분 수화교실을 연다. 7기 초반은 16일부터 3개월간, 중급반은 21일부터 3개월간. 회비는 교재비포함 3만원. (02)720-4528

이전

△불지사(대표 김형균)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장충동 뉴장충빌딩에서 중구 목정동 18-9 배영빌딩 401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263-1941

나의 수행일기



노익원

(누에서 사경)

현대는 어느 시대보다 많은 종교와 신도들이 있다. 그러나 어느때 보다 아귀들이 많아 경제성장이라는 이상을 받들고 지구를 난도질하며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탐욕의 업력을 이기지 못하고 물랑화 야귀화되었기 때문이다. 유신보당이 살기 등등하게 전횡의 총칼을 휘두르던 75년, 나는 그들의 폭정과 거기에 빌붙어 가는 소위 언론사 간부들의 작태가 역겨워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두고 태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승려가 되었다. 삭발하고 승복을 입어 외양은 크게 달라졌지만 나의 내면세계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 불교에 대한 지식은 나의 승려로서의 내실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매일 진수성찬에 황제처럼 먹고 살림걱정없이 참선을 한다고 눈을 감았다 뚫다 폼을 내기는 쉬운 일이었다. 그리고 삼매에 들어 투명한 침잠속에 소요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았다. 시

조그만 것이라도 거추장스러웠다. 여기에 매일의 탁발, 새벽 5시 목욕재계하고, 불기우는 머리에 깨끗한 맨발로 하는 공양은 익숙한 기도였다. 약간 검박은 포도알 같은 눈망울과 고사리손의 합장, 두손으로 밥통을 하늘로 받들며 스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긴 치마의 여인, 그 모습은 자유의 여신상보다 거룩했다. 그 앞으로 걸어가는데 승려는 한낱 절인일뿐이었다. 노숙하며 시위하는 가난한 농부의 공양, 다리밑에서 사는 거지의 가사 시주는 충격이었다. 나는 이들에게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전생애 어디서 무엇으로 만났던가? 탁발은 날이 갈수록 행선이 되어갔다. 태국의 스님들은 삼승 한발자 화전민촌의 가난한 오지로 들어가 농사를 지도하고 우물을 파고 마약과 술에 젖은 백수들을 사탕구실하게 교화했다. 육식을 하는 태국의 승가에서 그들은 거기가 채식만 했고, 하루 한

태국 출가경험 '밀거름'

20년째 '비승비속'... '생태계 보존' 화두

각이 멈춘듯한 고요속에 사물은 새롭고 더 뚜렷하게 보이는 신비한 경지였다. 그러나 삼매에서 깨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각자의 전생의 업력은 현재의 수행을 무력화했다. 타고난 각자의 선성, 좁은 소

끼 밖에 먹지 않았다. 천행처럼 내려온 몇천년의 가난을 벗어나게 했지만 허황한 부는 추구하지 않는 지혜로 이상적인 공동체를 일구었다. 마을에서 생산한 모든 식량은 절의 참고에 보관하고 공산품은 최소한



견, 탐심은 용맹정진도 소멸시키지 못했다. 수행을 하지 않아도 보살이 있었고 참선을 해도 아귀는 아귀였다. 무수히 윤회를 되풀이 해온 한 생명의 업력앞에 몇 년 몇 십년의 수행이란 수미산에서 한집 흙을 털어내는 정도인 것 같았다.

으로 공동구매, 가구마다 필요한 양만 갖다 먹고 썼다. 서양인들은 이런 마을을 '부디스트 유토피아'라 불렀다. 보살행을 하는 그들을 통해서 참 삶에 대한 많은 감화를 받았다.

이러한 내게 승려로서의 자세를 추스리게 한 건 고승의 설법도 불교의 교리도 계율의식도 아니었다. 무소유의 생활이었다. 두벌의 가사와 발우, 돗자리와 베개(이불과 오는 가사문 대신했다) 그리고 몇 점의 책과 세면도구가 모두인 내 살림은 짐작할 것이 없는 자유를 만끽했다. TV 라디오 신문 전화가 없는 생활은 무명의 때가 벗겨지는 신선한 것이었다. 불교책도 지식도 사들여져 갖고 소유는

태국에서 출가생활 1년을 수행 운운하기에 너무 짧은 순간이다. 그러나 그때의 업연은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어져 비승비속의 생활을 하고 있다. 우선 가난의 선택이다. 오늘의 말법적인 세계의 작태가 잘 먹고 잘 살자는 탐욕에서 비롯 되었기에 나는 못먹고 못살자는 주이다. 청빈한 생활만이 이 지구의 오염된 환경과 파국의 생태계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요즘의 화두는 불교와 생태학의 접목이다.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Recruitment information for '98 Samhwa Buddhist University. Includes a table of subjects and enrollment details, and a list of 50+ faculty members.

Advertisement for 'Sachal' (사찰) featuring a traditional Korean festival scene and text about Buddhist traditions and art.

부처님과 맺은 인연 평생을 부처님을 위해 일하는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영업품목: 고건축·대불·옥불·동불·특수불·석불·탱화·개금·단청·법당내부·사찰 홍보기획 및 출판대행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